

# 광주시·삼성전자 협업 “중소기업 지능형 공장으로”

### 고도화 30곳·기초단계 20곳...20억원 투입

### 정보통신기술 등 지원...삼성전자 전문가 상주해 전수

광주시와 삼성전자가 협업해 ‘중소기업 지능형(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삼성전자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20곳을 광주지역에 지원함에 따라 이를 확대해 총 50개 기업을 선정해 20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능형공장은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제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장이다.

광주시는 올해 고도화단계 30곳, 기초단계 20곳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고도화 단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능형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별도 협약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의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기초단계는 삼성전자의 협업해 기업당 1억원 이내가 지원되며 삼성전자 30%, 자부담률 20%이다.

또 삼성전자는 현직 제조전문가 3인이 지원기업에 8~10주간 상주하며 제조혁신 노하우를 전수하고 품질·생산성·물류·환경 등 분야별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금융·가공·자동화 등 기술적 문제 등을 조언하고 해외시장에서 제품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삼성전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관로 개척, 삼성전자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인력양성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지능형공장 도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고도화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365센터도 운영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시는 삼성전자의 협력사 자동화 시스템 지원 사업 추진에 맞춰 대상 기업을 확대했다”며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5일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달말께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를 통해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기 기자

# 광주시장, 14~21일 이탈리아 간다

### “디자인도시 배운다”...토리노·밀라노·베니스 방문

강기정 시장이 광주비엔날레 세계화와 유럽 교류도시 확대를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과 대표단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유럽 교류도시 확대·도시 공공디자인 벤치마킹·광주비엔날레 세계화를 위해 이탈리아 토리노·밀라노·베니스를 찾는다.

강 시장 등 대표단은 지난 2012년 우호협약 만료로 교류가 끊긴 토리노시를 방문해 12년만에 도시교류를 재개한다.

강 시장과 스테파노 로 루소 토리노시장이 영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우호협약을 재개하자는데 뜻을 함께하면서 성사됐다.

광주시와 토리노시는 자동차산업 중심의 경제협력과 디자인 도시재생에 대해 실질적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또 디자인도시인 밀라노를 찾아 ‘디자인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산업디자인계의 거장 ‘스테파노 지오반노니’를 면담하고 디자인도시의 가치와 발전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탈리아 최대 컨벤션시설인 ‘피에라 밀라노’를 방문해 안드레아 소지 국제사업본부장 등 경영진을 만나 컨벤션 효과와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대표단은 베니스 비엔날레를 찾아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김도기 기자



21기 빛고을청년봉사단 발대식. 강기정 시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구 광주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1기 빛고을청년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봉사단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빛고을장학금 확대한다

### “최대 500명, 5억 규모”...상·하반기 나눠 2회 지급

광주시가 빛고을 장학금 규모와 대상 학생을 500명으로 늘린다.

광주시는 빛고을장학재단이 2024년 운영 활성화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장학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장학금 대상 학생은 지난해 406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늘었으며 선발횟수도 1회에서 상·하반기 구분해 2회 지급한다.

장학금 규모는 지난해 3억 8000만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반기에는 학업장려 부문(중·고등학생), 생계관란, 직업계고 등 학생 지정장학생을 선발하며, 하반기에는 학업장려(대학생), 예·체능·특기분야, 이사장추천 분야 및 지정장학생(인공지능·이공계·자연계 등)을 선발한다.

이어 자치구, 시교육청, 대학 등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6월에는 상반기 장학생을 최종 확정,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중학생 1인당 35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50만원 등이다.

조준주 기자

연계 등)을 선발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이공계 분야 대학 전공생과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정장학금 기부가 늘어남에 따라 지정장학생 규모를 확대한다.

장학재단은 이달 중 장학선발 위원회를 개최하고 선발규모, 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다.

이외 자치구, 시교육청, 대학 등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6월에는 상반기 장학생을 최종 확정,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중학생 1인당 35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50만원 등이다.

조준주 기자

# 영암·순천·곡성, 농촌 크리에이티브 사업 선정

### 마을 자원·관광 연계해 농촌경제 활성화

영암, 순천, 곡성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기존 농촌 관광상품을 새롭게 콘텐츠화해 지속적인 농촌 여흥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시·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농촌관광 관련 중간지원조직과 민간 여행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시·군이다.

전국적으로 9개 시·도에서 20개 사업이 선정됐고, 전남에서는 ▲영

암 ‘내 안에 품은 영암, 달콤에’ ▲순천 ‘두루미(美) 순천 마을여행’ ▲곡성 ‘팍 컬처 랩(Farm Culture Lab), 문화법석 난리곡성’ 이 선정됐다.

예산은 사업당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며,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촌에 보다 많은 체류 인구가 유입돼 농촌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농촌경제를 활성화할 정책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호 기자

# 전남, 청소년 어울림마당 올해 첫 행사

### 공연·전시·놀이·체험 등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

전남도가 올해 첫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열었다.

이 축제는 통상적인 행사와 달리 문화예술·스포츠·역사 등을 소재로 공연과 경연, 전시, 놀이, 부스운영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올 한해 8차례 열릴 예정이다. 첫 행사는 13일 전남도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진행됐다.

“전남 청소년, 우리 함께 날아 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어울림마당은 1부 개막식을 시작으로 2부 공연·놀이마당, 체험부스 운영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은 전남도 청소년 자치기구인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과 꿈드림 청소년단 위촉장 수여식, 주제 세리머니 등을 통해 미래 전남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응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개막식 후 이어진 공연마당에서는 청소년공아리 5개 팀이 참여해 밴드 공연, 케이팝(K-POP) 댄스 등 청소년이 그동안 갈고 닦은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 ‘창립 20돌’ 전남개발공사, 역대 최고순익 달성

### 당기순이익 579억 원 최대 실적...9년 연속 흑자 기록

전남개발공사가 창립 이래 20년 만에 최대 경영성과를 거뒀다.

12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2023년 회계결산 결과, 토지 판매와 원가관리 등을 통해 당기순이익 579억 원으로, 지난 2004년 창립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재무적 안정성도 한층 강화됐다. 2023년말 부채비율은 47%로 낮아져 직전 10년 중 가장 안정적이다.

금융비용을 수반하는 금융부채 비율도 37%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분양토지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리스크관리체계 고도화로 사전에 이익감소 요인을 예측, 사업별 공정을 관리와 철저한 원가심사 등 종합적 재무관리를 이룩한 점이 흑자 요인으로 꼽힌다.

김호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